



**공동주택건설 지역업체 참여 MOU** 원주 관내 공동주택건설 지역 업체 참여 양해각서 체결식이 11일 원주시청에서 열려 원창목 시장(가운데), 원주기업도시 이지더원 2차 아파트 시공사인 (주)라인건설 송동근 건설문화본부장(왼쪽), 벨라시티 3차 시공사인 에스지건설(주) 조형범 대표(오른쪽) 등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 ‘강원경제인대회’ 참가자 모집

강원경제단체연합회(이하 강경연)가 ‘2018 강원경제인한마음대회’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강원경제인한마음대회는 도내 경제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와 강경연이 올해 두 번째로 마련했다. 대회는 다음 달 6~7일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 2층에서 열리며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 우리가 주역입니다’란 주제로 특별강연, 경영특강, 전문 예술단의 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대회 사무국인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로 하면 된다. 문의는 (033)241-0010.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mailto:peace@kwnews.co.kr)

## 내달 6~7일 강원경제인한마음대회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강원경제인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행사가 평창에서 열린다.

강원도와 강원경제단체연합회(회장 최돈진)는 내달 6~7일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2018강원경제인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유관기관 단체장을

비롯해 경제인 4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한마음대회는 최근 남북평화분위기를 반영해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 우리가 주역입니다'라는 주제로 특별강연 3회, 경영강연 2회,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강원경제단체연합회 사무국인 중소기업중앙회 강원본부(033-241-0010)가 주관한다. 신관호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놓고 업계 불만... 왜?

# “용어 설명 모호, 지역사 보호 규정도 빠져”

정의 조항 '지역건설산업'  
구체적인 대상 설정 없어  
건설근로자 정의도 빠져  
도민 보호 장치도 '미흡'

강원도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조례상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거나, 도민 보호 규정이 제외돼 도 건설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관련 조례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보면 제2조 정의 조항이 모호한 용어를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는 해당 조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을 설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대상 설정이 필요하다.

강원도는 2조 정의 조항에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강원도 내에서 수행

강원도-타 지자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비교

정의	강원도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강원도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건설업, 건설용역업은 물론 다른 법령에 의해 등록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업 등의 업체
지역건설업체 보호규정	강원도	지역건설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내 지역으로 해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
	경기도	강원도 정의와 더불어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 참여를 위해 120일 이전에 도내 등록된 업체는 제외
도민보호규정	강원도	지역건설근로자 정의 빠짐
	전라북도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자에 고용돼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설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근로자로서 전라북도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
지역중소기업자 조항	강원도	없음
	서울특별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설업자

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하지만 이는 다른 지자체 조례 조항과 비교해 구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 정의 조항을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건설업, 건설용역업은 물론 다른 법령에 의해 등록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업 등의 업체를 말한다'고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

지역건설업체 보호 규정도 미흡하다. 강원도 조례는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

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내 지역으로 해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반면 경기도는 이 조항에 더해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 참여를 위해 120일 이전에 도내 등록된 업체는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복구공사 수주로 단기간 등록된 업체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의 수혜를 입는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 보호를 한층 더 강화했다는 평가다.

도민 보호 규정도 미흡하다. 강원도 조례 정의 조항에 지역건설근로자 정의는 빠져 있다.

반면 전라북도 등은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자에 고용돼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근로자로서 전라북도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강원도 지역중소건설업자도 활성화 대상에서 빠져 있다. 서울특별시는 지역중소건설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설업자를 말한다'고 정의돼 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란 중소기업업체의 주주 기회를 늘리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17개 광역시도는 모두 이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도 건설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로 구체적이지 못한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실질적인 지역건설업체 및 도민 보호를 위한 규정이 미비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성엽기자 starleaf@

##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 최영목씨 내정... 29일 총회서 선임

건설공제조합 차기 이사장에 최영목(58·사진) 전 GS건설 홍보위원(부사장급)이 내정됐다.

건설공제조합은 11일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292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박승준 현 이사장 후임으로 최영목 전 홍보위원을 차기 이사장으로 추천했다.

최 내정자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송문고등학교,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1985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사회부, 정치부, 국제부를 거쳐 사회부장, 통합뉴스센터장, 편집국 부국장, 마케팅본부장을 역임하며 30여년간 언론에 몸담았다. 2011년 퇴사 후에는 2년간



GS건설 홍보위원(부사장급)을 지내며 GS건설의 홍보전략을 주도했다.

최 내정자는 오는 29일 조합원 총회를 거쳐 새 이사장으로 선임되며, 임기는 오는 11월1일부터 3년이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114회 임시총회 개최와 추가경정예산안, 2019사업연도 예산안, 2018년도 채권상각 승인의 건 등을 함께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수익 4360억원, 비용 2898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0.8%, 0.7% 증액 편성됐다.